

청소년들의 ‘자아상’에 대한 연구 - 전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

최 태 산¹⁾

공 종 례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상이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과 성적수준별,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남 초·중·고 등학생 617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는 SIQYA를 기초로 홍은주(1997)가 재구성한 설문지를 부모와 관련된 문항을 교사와 관련된 문항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급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거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Cronbach α , t-검증, ANOVA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상태, 정신병리,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이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교우관계, 대처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셋째, 성적 상·중 집단의 청소년이 성적 하 집단에 비해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남학생은 초·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정서상태, 충동통제, 친구관계, 대처능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초등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중·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남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정신병리,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중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정서상태, 정신병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적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청소년, 자아상, 성별, 학교급, 성적수준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전남담양교육청 상담교사 (E-mail : kjr7457@hanmail.net)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와의 잦은 갈등, 교우들과의 학교폭력, 가출, 비행, 자살 등 반항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 내면에서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이 내재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는 청소년기의 자아상 구현 및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행동과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며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할 과제이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아상(Erikson, 1968)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내면의 심리적 특성이 자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상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며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신 생활경험의 총체(Coombs 1981)이다. 이춘재와 곽금주(1994)는 청소년기의 자아상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생물학적 성숙과 주변 상황적 변화로 인해 타인의 반응과 일치하지 못하면 점차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행동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아상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자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으로 종교단체 소속 청소년, 질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시설아동이나 폭력피해 경험 청소년 등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

고가 많았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같은 학교급에서 이루어졌으며 초·중·고 학교급을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남녀의 비교차이 및 성적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많은 편은 아니었다. 연구내용에서는 자아상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으며 자아상 자체의 발달경향을 집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상을 성별, 초·중·고 학교급별, 청소년들의 성적수준별에 따른 심리 사회적 발달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 내에서도 초·중·고 학교급별 차이와 성적수준별 차이 그리고 학교급별 내에서도 성적수준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심리 사회적 발달 경향을 세분화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정책가들에게 변화 가능한 청소년들의 자아상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과 상담 그리고 정책수립에 보다 세분화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아상 하위변인으로는 Peterson 등(1984)이 Offer(1982년)의 자아상척도를 초등 학교 고학년의 어린 연령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든 청소년용 자기상 검사(SIQYA)를 기초로 하였다. 홍은주(1997)가 우리나라 현실과 이질감이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설문지를 청소년기의 발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성숙요인과 요즘 사회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친구관계, 대처능력과 교사관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 중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급 성숙으로 충동성, 우울성과 같은 심리적 변화의 기복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가치관과 친구들과 의복, 머리모양 등 유사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커지는 시기이다(장휘숙, 1999). 최근 청소년들과 교사와의 갈등문제로 학교위기론(남정민, 2006)이 거론되고 있으며 교우들 간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박영신, 김의철, 2001)가 되며 가출, 자살 등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김준형, 김봉준, 장동원, 1999). 따라서 자아상의 하위변인으로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하위변인별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상태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회로 애락에 대한 감정 상태를 뜻하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 외로움, 분노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고 조절하면 안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것이다. Cole(1965)는 청소년기 정서적 발달 과업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성숙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상태 즉 분노, 긴장감, 정서적 불안감, 통제 불능 상태의 감정 등은 청소년의 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민아, 권경인, 2008; 한태영, 이세란, 2005).

둘째, 충동통제에서 충동이란 대인관계 불안과 긴장을 의미하며 충동통제는 이러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된 선행 연구는 충동 억제력 부족과 긴장감 그리고 대처능력 부족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한선화, 현은강, 2005; Asarnow & Callan, 1985).

셋째, 정신병리란 괴상한 사고, 혼돈감, 과대망상, 환각 등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Conger와 Peterson(1984)은 청소년의 정신병리는 일탈행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교사관계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 공격성, 신뢰감, 만족감, 적대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신병리적인 우울증, 불안, 죄책감, 물질 남용 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강미애(1992)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관계에서는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생과 교사의 안정적인 상호관계는 학업성취, 학습태도, 목표지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문은식, 2002; 전경숙, 1984),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은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보고(구자경, 2003; 박영신, 김의철, 2004; 정정임, 주은선, 2006), 교사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불안감은 학교폭력, 또래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등 청소년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구자경, 2003; 김교정, 서상현, 2006;

박영신, 금의철, 2001; 성종호, 이영식, 이길홍, 1999;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등이 있다. 위의 결과 교사관계는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친구관계란 동성 친구관계를 의미하며 청소년들의 친구지지도, 우호도 등이 속한다. 친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대상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도, 우상화, 팬클럽, 친구 동조 등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일탈행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현주, 2004; 박영신, 김의철, 2004; 한영민, 2007).

여섯째, 대처의 개념은 명확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대처능력은 청소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발달과업 대비와 과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연문희, 1985; 최연실, 김현영, 2005; 이미정, 2006).

다음은 자아상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학교급, 성적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남여심리에 대해 Karen Horney (1991)는 청소년 시기의 여학생 심리는 남학생과 달리 여성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쉽게 불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등 변화가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보고(신민섭, 소준현, 홍강의, 1996; 윤옥현, 2007; 이춘재, 박금주, 1994)등이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에 대한 만족도, 충동성, 낙관성, 창의성이 높다는 보고(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학생의 불안 심리는 그들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같은 연령이지만 어느 학교급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심리 사회적 발달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생활하는 것과 중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로 각각 다른 자아상을 나타낼 것이다. 학교급별과 유사한 학령 비교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령이 올라갈수록 자아상이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이춘재, 박금주, 1994). 위와 같이 학교급에 따라 자아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가장 큰 관심인 성적은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Bloom (1971)은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안귀덕(2003)은 청소년들이 학교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성적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 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보고(강난수, 2007; 김준형, 김봉준, 장동원, 1999; 박은조, 2001; 윤옥현, 2007; 장수영, 2006)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상을 개인적 특성 요인인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에 따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1) 청소년의 '자아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 2) 청소년의 '자아상'은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 3) 청소년의 '자아상'은 성적수준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 4) 청소년의 '자아상'은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 5) 청소년의 '자아상'은 성별 내에서 성적수준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 6) 청소년의 '자아상'은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에 따라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학교폭력, 비행, 가출 등의 부적응 청소년이 아닌 정상적인 학교생

표 1. 연구대상의 구성

변인	구분	N=617(%)
성별	남자	298(48.3)
	여자	319(51.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3(16.7)
	초등학교 5학년	108(17.5)
	중학교 2학년	201(32.6)
	고등학교 2학년	205(33.2)
성적수준	상	129(21.2)
	중	349(57.2)
	하	132(21.6)

활을 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 298명(48.3%), 여학생 319명(51.7%) 총 617명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5학년 211명(34.2%), 중학생 2학년 201명(32.6%), 고등학교 2학년 205명(33.2%)이었다. 성적수준은 스스로 자기 평가에 의해 상, 중, 하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상위 집단 129명(21.2%), 중위 집단 349명(57.2%), 하위 집단 132명(21.6%)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상'의 척도는 Peterson 등(1984)이 Offer(1982년)의 Self-Image Questionnaire를 초등학교 고학년의 어린 연령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같은 하위영역을 제외시키고 좀 더 쉬운 문항으로 수정하여 청소년과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9개 하위영역에 9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용 자기상 검사(SIQYA: ① 정서상태 ② 충동통제 ③ 정신병리 ④ 가족관계 ⑤ 친구관계 ⑥ 대처능력 ⑦ 신체상 ⑧ 직업 교육 목표 ⑨ 우월한 조직력)를 수정하여 사용한 홍은주(1997)의 6개 영역 총 67문항의 질문지(심리적 발달의 하위영역 ① 정서상태 ② 충동통제 ③ 정신병리 3영역과 사회적 발달의 하위영역 ④ 부모관계 ⑤ 친구관계 ⑥ 대처능력 3 영역)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사 관계를 살펴보고자 부모관계를 교사관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부모님은 나에게 너그러우신 편이다.'를 '나는 선생님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선생님은 나에게 너그러우신 편이

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문항별로 4점은 ‘항상 그렇다.’ 3점은 ‘대체로 그렇다.’ 2점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Likert 척도였다. 자기 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적인 방향의 문항 내용은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만큼 착하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난폭해진다.’ 등의 문항은 점수를 역순으로 계산하여 각 문항의 평정치를 합한 점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 변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는 ‘정서상태’가 .86, ‘충동통제’가 .87, ‘정신병리’가 .86, ‘교사관계’가 .87, ‘친구관계’가 .87, ‘대처능력’이 .89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는 질문지를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자 해독 미숙 및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미리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학교에 방문하여 교실에서 직접 질문지를 배포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성별과 성적수준별 그리고 학년별 학생 수와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자아상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에 따른 자아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 분산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 자아상의 차이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에 따른 자아상에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 자아상의 차이는 정서상태($t=3.33, p<.001$)와 정신병리($t=3.33, p<.001$), 친구관계($t=2.3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상태, 정신병리,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동통제, 교사관계, 대처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급별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는 정서상태($F=17.68, P<.001$), 충동통제($F=9.16, p<.001$), 정신병리($F=6.75, p<.001$), 교사관계($F=4.76, p<.01$), 친구관계($F=12.07, p<.001$), 대처능력($F=27.10, P<.001$),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성적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아상의 차이는 정서상태($F=4.50, p<.001$) 정신병리($F=10.83, p<.001$), 교사관계($F=4.14, p<$

표 2.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 자아상의 차이

변인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29.76	(4.77)	21.46	(3.93)	31.52	(6.53)	48.72	(5.81)	27.99	(4.23)	22.01	(4.02)
여	28.41	(5.05)	21.46	(3.61)	29.69	(6.71)	48.40	(5.38)	27.24	(3.66)	21.56	(3.72)
<i>t</i>	3.33***		-.02		3.33***		.70		2.30*		1.43	
초	30.54c	(5.35)	22.25b	(4.28)	31.94b	(7.14)	49.48c	(6.32)	28.61c	(4.57)	23.12c	(4.22)
중	28.98b	(5.04)	21.50ab	(3.71)	30.19ab	(7.09)	48.39b	(5.74)	27.60b	(3.82)	21.84b	(3.74)
고	27.67a	(4.02)	20.67a	(3.05)	29.57a	(5.51)	47.74a	(4.45)	26.66a	(3.14)	20.37a	(3.07)
<i>F</i>	17.68***		9.16***		6.75***		4.76**		12.07***		27.10***	
상	29.76b	(4.51)	21.63	(4.05)	31.35b	(6.42)	48.86b	(5.17)	28.01b	(3.42)	21.40	(3.77)
중	29.30b	(4.83)	21.57	(3.57)	31.14b	(6.38)	48.84b	(5.09)	27.83b	(3.81)	21.87	(3.78)
하	27.56a	(5.38)	20.95	(3.88)	28.14a	(7.04)	47.25a	(6.63)	26.52a	(4.47)	21.73	(4.10)
<i>F</i>	4.50***		1.50		10.83***		4.14*		6.13**		.66	

* $p < .05$, ** $p < .01$, *** $p < .001$

.05) 친구관계($F=6.13$, $p < .01$)가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 상·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과 성적수준별,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차이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 차이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남학생은 정서상태($F=8.04$, $p < .001$), 충동통제($F=4.32$, $p < .05$), 친구관계($F=5.54$, $p < .01$), 대처능력($F=8.05$,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은 정서상태($F=41.99$, $p < .001$), 충동통제

($F=14.61$, $p < .001$), 정신병리($F=6.37$, $p < .01$), 교사관계($F=8.91$, $p < .001$), 친구관계($F=8.69$, $p < .001$), 대처능력($F=32.24$, $p < .001$)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초·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정서상태, 친구관계, 대처능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동통제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정신병리와 교사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학생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처능력에서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학생 다음으로 고등학생 순이었다.

표 3.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과 성적수준별,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차이

변인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자	초	30.66b	(5.14)	21.47ab	(4.50)	32.31	(7.05)	48.82	(6.63)	28.74b	(4.85)	22.56b	(4.41)
	중	30.64b	(4.78)	22.39a	(3.81)	32.10	(6.73)	49.13	(6.11)	28.53b	(4.22)	22.94b	(4.06)
	고	28.36a	(4.09)	20.72b	(3.32)	30.41	(5.77)	48.33	(4.71)	26.92a	(3.38)	20.82a	(3.29)
	F	8.04***		4.32*		2.55		.44		5.54**		8.05***	
여 자	초	30.47a	(5.55)	22.95a	(3.97)	31.61a	(7.28)	50.19a	(5.96)	28.45a	(4.33)	23.69a	(3.99)
	중	27.83b	(4.90)	20.83b	(3.49)	28.87b	(7.08)	47.89b	(5.45)	26.93b	(3.39)	21.07b	(3.30)
	고	26.88b	(3.83)	20.60b	(2.74)	28.64b	(5.08)	47.13b	(4.10)	26.38b	(2.84)	19.88c	(2.75)
	F	41.99***		14.61***		6.37**		8.91***		8.69***		32.24***	
남 자	상	30.49	(3.96)	21.97	(4.00)	32.68a	(5.07)	49.05	(5.50)	28.79a	(3.45)	21.95	(3.58)
	중	29.79	(4.88)	21.31	(3.83)	31.98a	(6.62)	49.06	(5.49)	28.45ab	(4.20)	21.97	(3.97)
	하	29.00	(5.24)	21.28	(4.04)	29.30b	(7.08)	47.71	(6.74)	26.92b	(4.75)	22.16	(4.63)
	F	1.52		.75		5.19**		1.29		3.33*		0.06	
여 자	상	28.97b	(4.95)	21.23	(4.11)	29.91b	(7.41)	48.66b	(4.85)	27.17ab	(3.21)	20.80	(3.92)
	중	28.91b	(4.78)	21.79	(4.34)	30.47b	(6.15)	48.70b	(4.75)	27.55b	(3.43)	21.80	(3.63)
	하	26.26a	(5.21)	20.60	(3.70)	26.98a	(6.87)	46.81a	(6.55)	26.13a	(4.18)	21.30	(3.48)
	F	7.59**		2.75		6.71**		3.29*		3.75*		1.78	
초	상	30.30	(4.90)	21.87	(4.40)	31.35	(7.19)	49.50	(5.69)	28.42	(3.76)	22.20	(3.79)
	중	30.69	(5.29)	22.39	(4.16)	32.50	(6.79)	49.69	(5.64)	28.86	(4.57)	23.64	(4.16)
	하	29.76	(6.48)	21.96	(4.35)	29.82	(8.41)	9.19	(1.88)	27.26	(5.86)	22.61	(4.98)
	F	.31		.34		1.52		1.06		1.21		2.45	
중	상	30.22b	(4.16)	22.08	(3.80)	32.11b	(5.99)	48.94	(5.38)	28.19	(3.24)	21.22	(4.08)
	중	29.34ab	(4.96)	21.70	(3.21)	30.93b	(7.17)	48.71	(5.20)	27.85	(3.68)	21.71	(3.28)
	하	27.53a	(5.48)	20.75	(4.30)	27.60a	(6.95)	47.29	(6.56)	26.71	(4.28)	22.40	(4.21)
	F	3.82*		1.83		6.03**		1.39		2.25		1.19	
고	상	28.07	(3.80)	20.55	(3.52)	30.39	(5.29)	47.41	(3.29)	26.89	(2.69)	20.00	(2.94)
	중	28.02	(3.88)	20.74	(3.04)	30.08	(5.06)	48.17	(4.14)	26.94	(2.84)	20.40	(3.10)
	하	26.61	(4.47)	20.65	(2.88)	28.02	(6.48)	46.98	(5.06)	25.91	(3.93)	20.46	(3.17)
	F	2.22		.05		2.70		1.29		1.90		.23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차이

성별 내에서 성적수준별에 따라 자아상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남학생은 정신병리($F=5.19, p<.01$)와 친구관계($F=3.33, p<.05$)에서, 여학생은 정서상태($F=7.59, p<.01$), 정신병리($F=6.71, p<.01$), 교사관계($F=3.29, p<.05$), 친구관계($F=3.7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정신병리에서는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 성적 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적 중 집단, 성적 하 집단 순이었다. 남학생은 정서상태, 충동통제, 교사관계, 대처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서는 성적 중 집단, 성적 상 집단, 성적 하 집단 순이었다. 여학생은 충동통제와 대처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 수준별 차이

학교급별에서 성적별 자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중학생만 정서상태($F=3.82, p<.05$), 정신병리($F=6.0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성적 상 집단이 정서상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성적 중 집단, 성적 하 집단 순이었다. 초·고등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상을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과 성적수준별 차이,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차이를 분석하여 아래에서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 연구와 비교 논의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상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상태, 정신병리, 친구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학생보다 근면하고 능동적인 유능한 존재로 지각한 것과 부분 일치한다(김선무, 1992). 여고생들의 우울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김태순, 2008, 엄의순, 2002). 이는 Karen Horney(1991)이 청소년기의 사춘기 여학생 심리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쉽게 불안하거나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친구관계에서도 남학생들이 사교적이며 여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수줍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초·중·고 학교급별에 자아상의 차이에서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대처능력,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우울하며 충동적이고 생각이 혼돈스러우며 교사나 친구관계에서 긴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등학생들은 복도 입구부터 활발하고 소란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잦은 평가와 입시 문제 등의 압박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교사와 친구들 간의 대인관계에서도 상호소통에서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대상 군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별 심리 사회적 발달 특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성적수준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에서 자아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장수영, 2007)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성적에 관심이 아주 많다. 본 연구자는 성적수준에서 하 집단의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적 상·중 집단에 비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적 중 집단이 상 집단보다 자아상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상 집단과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중 집단 이상의 청소년들은 불안감과 우울감 등의 정서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 집단 이상의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상호관계 유지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지도를 비슷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성적 상 집단의 청소년이 뽑히는 것만이 아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상 군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실시되어야겠다.

넷째,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 자아상의 차이에서 남학생은 정서상태, 충동통제, 친구관계, 대처능력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초·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정서상태, 친구관계, 대처능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초·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우울, 외로움, 분노의 정서상태와 친구의 지지도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친구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보고(이미애, 정희옥, 2004),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긍정적인 특성이 감소하며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진로, 입시 등과 같은 요인 등으로 부정적 자아상을 나타낸다는 보고(윤옥현, 2007; 이춘재, 곽금주, 1994; 홍은주, 1997)등과 일치한다. 충동통제는 중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다음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충동통제는 연령별, 계층별 차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이춘재, 곽금주, 1994)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 남자 청소년은 초·중학생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나 초·중학생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서상태와 친구관계 그리고 대처능력에서 고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와 진로선택, 직업선택의 어려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가 심리 사회 발달적으로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고등학생이 우울, 외로움, 분노, 교우관계의 어려움, 대처하는 능력의 어려움 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성인기의 문제행동과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학생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보다 대처능력 영역을 제외한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긴장감이 적고 밝고 명랑하며 교사에게 존경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춘기의 중·고등학생은 우울, 불안, 긴장감을 느끼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낮은 존경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충동통제에서 남자 중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남자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학교폭력, 가출, 비행으로 상담실 방문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한국 청소년상담원, 2004) 중학생들이 충동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은 한 담임교사에게 공부를 하면서 생긴 불안감과 긴장감을 심리 사회적 발달과 표현력 미숙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 초등학생 때보다 심리 사회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줄어들며 학교환경에서는 각 과목별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사에 대한 갈등이 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 남자 중학생들은 내재된 불안감과 갈등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

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진로와 입시 불안, 취업 등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다시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내에서 학교급별 차이에서 남학생은 초·중학생이 동질 집단으로, 여학생은 중·고등학생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남녀 심리 사회적 발달의 차이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남녀 심리 사회적 발달 특성이 어떠한지 대상 군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자아상의 차이에서 남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정신병리 즉 괴상한 사고나 혼돈감, 과대망상 등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에서는 성적 상 집단, 성적 중 집단, 성적 하 집단 순으로 친구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부진이 청소년 우울의 원인이었으며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위축, 회피 경향, 자기 비하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과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한다는 보고(강난수, 2007; 박은조, 2001; 윤옥현, 2007; 장수영, 2007)와 일치한다.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또한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다는 보고(윤옥현, 2007; 장수영, 2007)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성적수준이 남학생들의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성적 하 집단이 특히 우울, 자기 비하, 위축, 회피 등 부정적 지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이나 상담현장에서 성적 하 집단 남학생들의 상담개입이나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

발 시 차별화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은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적 하 집단의 여학생이 성적 상·중 집단에 비해 불안, 외로움, 괴상한 사고, 과대망상, 교사에 대한 존경심, 친구지지 등을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관계에서 성적 하 집단의 여학생이 교사와의 지지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은 성적수준별로 정신병리와 친구관계 두 영역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정서를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성적 중 집단이 성적 상 집단보다 낮은 자아상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남녀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제외한 정서상태, 정신병리, 교사관계에서 성적 상·중 집단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나서 예상과 맞지 않았다. 청소년의 남녀 성적 수준에 따라 자아상의 차이가 어떠한지 대상 군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급별 내에서 성적수준별 자아상의 차이에서 중학생은 성적수준이 정서상태, 정신병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 상·중 집단이 성적 하 집단보다 우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괴상한 사고와 과대망상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 이는 성적 중 집단이 성적 상 집단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중 집단 이상의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고등학생은 성적수준별 자아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상 군을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적 수준에 따른 자아상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 특성인 성별, 학교급별, 성적수준별로 자아상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청소년의 자아상이 보다 긍정적으로 구현되고 나아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사교육과 학부모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상을 측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상이라고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자아상을 측정하기 위해 자아상의 측정 도구 영역 중 부모와의 관계 영역을 교사와의 관계로 바꾸어서 측정하였다. 이에 학교에서의 자아상을 살펴볼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에서 밝힌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 변화의 차이를 밝히고자 청소년의 자아상을 측정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교사,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자아상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개인별 발달특성

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우는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난수 (2007). 초등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애 (1992). 농어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3, 97-107.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김교정, 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 변인의 경로 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49-179.
- 김민아, 권경인 (2008). 적응 유연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32.
- 김선무 (1992). Offer 청소년 자아상 설문지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형, 김봉준, 장동원 (1999).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및 자아상에 관한 연구. 소아정소년정신의학, 10(2), 220-235.
- 김태순 (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에 관한 Drow A Story 검사반응 특성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상화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1), 115-139.
- 남정민 (2006). 교사-학생의 상호갈등에 대한 지각 및 대응방식의 인적 특성요인별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목표지향성과 관계. 교육심리연구, 16(4), 5-21.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심리학회지, 10,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은조 (2001).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종호, 이영식, 이길홍 (1999).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신경정신의학, 38(3), 571-582.
- 신민섭, 소준현, 홍강의 (1996).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지, 7(1), 61-67.
- 안귀덕 (2003). 교육환경과 자아실현. 서울: 원미사.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엄외순 (2002). 대인불안에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효능감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 (1985).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상담방법 연구. 교육발전논총, 7, 171-192.
- 윤옥현 (2007). 가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

- 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정희옥 (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관계. *교육연구*, 16(17), 123-147.
- 이미정 (2006). 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8, 71-91.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1), 123-145.
- 이재석 (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자아상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곽금주 (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7(2), 119-135.
- 장수영 (2006). 학업 우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9). 대학생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 및 교수(교사)와의 갈등상황. *학생생활연구*, 26, 1-2.
- 전경숙 (1984). 학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 변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기초과학연구논문집*, 1(1), 59-69.
- 정정임, 주은선 (2006).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생생활연구*, 22, 1-16.
- 조현분 (2007). 중학생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공격성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 김현영 (200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 11-17.
- 한국상담원 (2004). 통계연보.
- 한선화, 현은강 (2005).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 조절전략 및 자기통제력. *아동학회지*, 27(6), 1-11.
- 한영민 (2007). 청소년 문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찰. *인간이해*, 28, 51-74.
- 한태영, 이세란 (2005). 청소년 정서관련 변인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 37-58.
- 홍은주 (1997).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Self-Image)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 발달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arnow, J. R., & Callan, J. W. (1985). *Boys with Peer Adjustment Problem: Social*.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racteristics in the Schools*. Boston: Allyn & Bacon.
- Cole, & Lulla. (1965). *Psychology of Adolescence* 6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onger, J.J. Peterson, A.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643-692.
- Coombs, A. W. (1981). Some observations on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In M. D. Lynch, A. A. Norem-Hebeisen, & K. J. Gergen (Eds.), *Self-Concep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Mass.: Ballinger.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Eri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ement*. Camg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ren Horney (1991). 김재은, 김현옥 편역. *갈등의 심리학*. 서울 배영사.
- Mischel, W. (1970).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2). New York: Wiley.
- Offer, D. Ostrow. Howard, KI. (1981). *The Adolescent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Basic Books.
- Offer, D., Ostrov, E. & Howard, D. (1982).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A manual* (3rd ed) Chicago: Michareel Reese Hospital.
- Peterso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TQYA): Re; o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1 차원고접수 : 2010. 05. 10.

수정원고접수 : 2010. 05. 23.

최종게재결정 : 2010. 05. 27.

The study on students' self-image

Choi, Tea-San

Kong, Jong-Lea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school students' own considerations about their self-image based on their gender, 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educational grade, school and educational grade in gender, and educational grade in school. To achieve this end, the study surveys 617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study from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located in Jeollanam-do. The study uses a questionnaire to examine students thoughts of self-image. This questionnaire is based on SIQYA revised by Hong Eun Ju (1997). All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have been updated from a previous study which referred to parents instead of teachers.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in person from all participating schoo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 α , t-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gender, 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scores than female counterparts in the field of emotional tone, mental health, relationship with friends. Second, by educational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rked the identify best with self-image in all fields follow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rd, by educational grade, students with medium to high grades are better than students with low grades in the fields of emotional tone,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Fourth, by school in gender, 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d better self-image than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field of emotional tone, impulse control,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disposal ability.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rk the identify best with self-image in all fields. fifth, educational grade in gender, male students with medium to high grades are better than male students with low grades in the fields of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Female students with medium to high grades are better than female students with low grades in the fields of emotional tone,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friends. Sixth, by educational grade in school, middle school students with medium to high grades are better than lower grade students in the fields of emotional tone and mental heal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do not show difference in their self-image based on their educational grade.

Key words : Student, Self-image, gender, school(elementary, middle, high), educational grade